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입선 논문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최수형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통해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관계가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으로 인해 주위사람들의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여 비행에서도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이다. 즉, 여성은 사회에 순응하고 규범적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청소년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중적 비난이 가해진 것이다. 또한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비공식적 낙인을 많이 경험할수록 또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은 어릴 적부터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에게 주위사람으로부터의 낙인은 주변 관계의 단절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도피수단으로 비행을 또 다시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통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여자비행청소년에게 주위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차후 비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문제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대책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반복적 비행, 비공식적 낙인, 성별 차이

최수형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사회학). tnguddl@korea.ac.kr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다.

## 1. 문제제기

오늘날 청소년범죄율은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범죄율에서 과거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소년들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범죄백서, 2006). 이러한 공식통계상 수치는 이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중 법적 처벌경험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적발되지 않은 청소년과 술 마시기와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솔과 같은 청소년 지위상의 비행청소년까지 고려한다면 전체 비행율에서 경력비행자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국내의 청소년비행 발생건수의 상당부분이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비행경험을 지닌 비행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유형과 비행횟수에서 심각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성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으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과는 그 심각성이 다르다(Bernburg & Krohn, 2003; Sampson & Laub, 2004; 김준호·이순래, 1995; 이순래·박철현, 1999; 김은경·이동원, 2003; 이순래, 2005).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행개입의 여부뿐 아니라 과거 비행경험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학에서 반복적 비행에 대한 문제는 낙인이론가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비행의 시작에 대한 원인에 집중하는 다른 전통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과는 달리 일시적인 최초비행에 대한 관심은 없고 반복적이고 필연적인 비행에 주목한다. 이는 낙인이론이 시간 흐름에 따른 비행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종단적 자료가 축적되면서 사회적 낙인경험과 시간에 따른 비행경험의 변화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는 반복적 비행에서 사법기관의 법적 처벌인 공식적인 낙인보다는 주위사람들에 의한 거부나 오명과 같이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Matsueda, 1992; Adams & Evans, 1996; Foglia, 1997; 이

성식 2006). 즉,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부모, 친구, 이웃, 선생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반복적 비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남자청소년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여자청소년의 반복적 비행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즉, 대부분의 비행에 관한 논의에서 단순히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적게 저지르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같은 집단 내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행은 청소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제로 남자청소년에게 비행은 한번쯤 경험할 수 있는 모험심과도 같은 차원의 행위로 이해되지만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중적 비난이 가해진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행의 의미는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성별이란 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남녀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최초 비행발생에 대한 원인에 집중하는 다른 전통범죄학적 관점의 이론들과는 달리 비행의 지속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사소한 비행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될 때 차후에 보다 심각한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낙인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비행청소년은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비행을 반복하게 되고 비행횟수가 증가하거나 과거에 비해 보다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본래 낙인이론은 1930년대 탄넨바움(Tannenbaum, 1938)의 연구로 시작으로 비행의 지속과정에 미치는 사법기관에 의한 낙인의 영향력에 주목한다(Akers, 2000, 재인용). 즉, 법적 처벌로 인한 공식적 낙인경험은 차후의 보다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Lemert, 1967). 이후 이러한 입장은 경험적으로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아 낙인이 찍히면 차후의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aramara & Cullen & Gersten, 1986; Kaplan & Johnson, 1991). 또한 발전범죄학적 논의에서도 청소년기동안의 법적 처벌로 인한 낙인경험은 사회적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성인기의 범죄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ampson & Laub, 1993).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기관의 낙인의 효과보다는 주위사람들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중심으로 비행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츠에다(Matsueda, 1992)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의 의한 비공식적 낙인이 비행의 중요한 유발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인식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아의 반사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of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Matsueda, 1992).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쉽게 저지른다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와 이러한 낙인을 찍는 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비행경력이 형성되는 사회적 메카니즘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낙인과 반복적 범죄간의 관계를 살펴본 젠슨(Jensen, 1972)은 주위사람들의 낙인으로 인한 범죄자로서 자아의식과 범죄지속간의 관계에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이순래, 2007,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주위로부터의 낙인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은 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주위사람에 의한 낙인경험을

사회적 유대관계나 부모와의 긴장과 갈등,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을 함께 다룬 결과 비행에서 주위사람에 의한 낙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6; 이동원, 2006).

또한 낙인이론은 이차적 비행 및 범죄에 대한 낙인의 효과에 주목함과 동시에 사회적 권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낙인의 문제를 제기한다(Visher, 1983). 즉, 낙인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사회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경제적·사회적 권력자와는 달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수인종이나 하류층은 범죄행위로 더 많이 기소되고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상류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제범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Zatz, 1984; Chilton & Galvin, 1985). 이러한 주장을 남녀 관계에 적용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권력이 약한 집단으로 여성의 비행이 남성의 비행보다 사회적으로 더 가혹하게 처벌받으며 더 강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여자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남자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에 비해 더 엄한 법적 처벌과 낙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ishop & Frazier, 1992; Chesney-Lind, 1977, 1988; Datesman & Scarpiti 1977; Shelder & Horvath, 1986; Odem, 1995를 Leiber & Mack, 2003, 재인용; Schur, 1984; Loeber & Merton & Schwartz, 1985; 김준호·김은경, 1995).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비행의 결과인 낙인에 주목한 것으로 비행으로 인한 낙인경험과 이후 반복적인 비행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역동적인 분석이 부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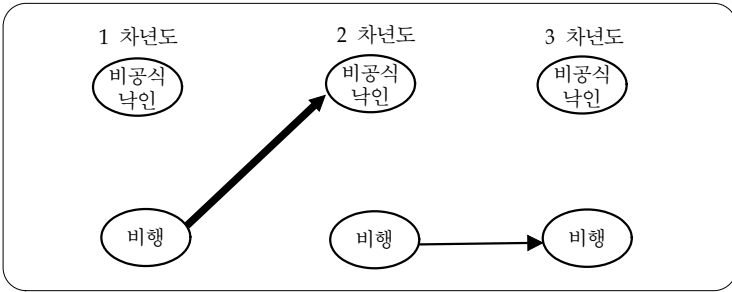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로 인하여 여성에게는 '여성다움'을 남성에게는 '남성다움'을 강조하여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

로 서로 다른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가 비행이지만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은 사회에 순응하고 규범적이 되기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청소년으로서 금지된 행위일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행위를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비행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는 비행에서도 남자아이니까, 여자아이니까 라는 식으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Heimer & Hruttschnitt, 2006). 따라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남·녀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주위로부터의 낙인이 이후 반복적인 비행에 미치는 효과도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은 어릴 적부터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비행 후 경험하는 비공식적 낙인에서의 성별 차이와 비공식적 낙인과 반복적 비행간 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1>은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구조방정식 모델로 진하게 표시된 화살표 경로가 비행시작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비공식적 낙인과 비행 후 경험하는 비공식적 낙인과 이후 반복되는 비행에 대한 인과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비행이 독립변인으로 비공식적 낙인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와 비행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이 독립변인으로 이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구조방정식 모델은 과거 비행경험으로 인하여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한번 경험한 비공식적 낙인이 지속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구조방정식 모델

## 2) 연구방법

### 가. 연구자료

이 연구는 종단적 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이후 KYPS)<sup>1)</sup>의 2, 3, 4차년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다. KYPS의 조사방식은 청소년들의 경우 1차년도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차년도 조사부터는 면접원과 학생과의 개별적 조사로 시행하여 조사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1차년도와 2,3,4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한 자료수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sup>2)</sup> 특히 비행과 같은 민감한 질문의 응

1) KYPS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식으로 2003년 4월 1일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제주도를 제외한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목표 표본 수를 할당한다. 학교 수는 12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학교추출은 학교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한다. 2006년도에 실시한 4차 조사가 완료된 현재 표집 유지율이 90.5%로 학생을 기준으로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어 성공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김기현·임희진, 2007).

2) 집단면접조사는 집단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집단면접조사는 질문지 응답 시 한사람의 발언이 전체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거나 옆 사람의 의견을 자문하여 본래 조사의 의도가 오염될 염려가 있다(김응렬, 2001). 한

답은 조사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사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 2,3,4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한다.<sup>3)</sup> 따라서 2차년도가 실제 분석의 1차년도가 된다.

#### 나.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경험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협박하기’, ‘남을 심하게 조롱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빼기’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해보았느냐”의 응답으로 측정된다.<sup>4)</sup> 다음으로 비공식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 한다’,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 한다’의 두 문항을 사용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에서 비공식적 낙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낙인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 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밝히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Amos 4.0의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

편, 개별면접조사는 조사원의 의견이나 유도질문으로 인해 피조사자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김웅렬, 2001).

3) 물론 비행경력 지속에 관한 논의에서 1차년도의 비행여부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패널조사의 1차년도라 할지라도 중 2때부터 시작된 조사이기에 그 이전의 과거비행경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4) 청소년패널조사에서 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은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를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점(outlier)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대값을 100회로 정하여 100회를 초과한 응답에 대해서는 최대값으로 대체하였다. 경비행경험 횟수에 대한 문항 중 ‘담배피우기’에 대한 문항이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와 ‘지난 1년간 하루에 본인이 한 횟수’로 측정이 되어 이 두 문항을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하루에 본인이 한 횟수’에 응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난 1년 간 본인이 한 횟수’의 최대값인 100번으로 대체하였다. 모든 비행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회로 포함시킨다.



Model)의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성별에 대한 개별집단의 모형을 분석하고 남·여의 각 모형에서 보여주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밝힌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1,594명이며 남자청소년이 1,594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50%로 동일하다. 두 번째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 내 수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으로 알 수 있다. 수입은 전화로 이루어진 부모조사에서 “댁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의 문항으로 가정 내 수입이 100만원미만의 경우 110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503명으로 16.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인 경우는 806명으로 27.1%,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의 경우 785명으로 26.4%, 400만원이상의 경우는 766명으로 25.8%로 나타났다.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아버지 학력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1,386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의 경우가 948명으로 30.3%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도 역시 고졸인 경우가 1,825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 537명으로 전체의 17.3%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에서 대학원 이상의 경우가 아버지는 6.4%로 어머니의 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손가정여부에 대한 것으로 양친과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4.4%로 나타났으며 결손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75명(5.6%)이다.

<표 1>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측정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청소년	1,594	50.0	
	여자청소년	1,594	50.0	
	소계	3,188	100.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 내 수입	100만원미만	110	3.7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503	16.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806	27.1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785	26.4
		400만원이상	766	25.8
		소계	2,970	100.0
	아버지학력	중졸	373	11.9
		고졸	1,386	44.4
		전문대졸	216	6.9
		대학교졸	948	30.3
		대학원이상	201	6.4
	소계	3,124	100.0	
	어머니학력	중졸	537	17.3
		고졸	1,825	58.8
		전문대졸	153	4.9
대학교졸		537	17.3	
대학원이상		51	1.6	
소계	3,103	100.0		
결혼여부	결혼아니다	2,931	94.4	
	결혼이다	175	5.6	
	소계	3,106	100.0%	

2)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인과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측정모델에서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와 결과는 <표 2>와 같다. 비행의 경우 '때리기'에 대한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다섯 변인의 모수를 추정하였고 비공식적 낙인의 경우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문항의 모수를 1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문항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비행의 관측변인과 비공식낙인에 대한 관측변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모수추정치

구분	비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때리기	1.00 (.740)	1.00 (.706)	1.00 (.686)	1.00 (.787)	1.00 (.629)	1.00 (.662)
패싸움	.366*** (.515)	.743*** (.680)	.356*** (.400)	.591*** (.721)	.386*** (.350)	.569*** (.468)
조롱하기	.931*** (.419)	1.145*** (.474)	1.364*** (.577)	.766*** (.424)	1.502*** (.534)	1.080*** (.408)
협박하기	.557*** (.447)	.834*** (.578)	.828*** (.672)	.516*** (.521)	1.003*** (.675)	.620*** (.562)
훔치기	.456*** (.386)	.666*** (.318)	.201*** (.182)	.287*** (.180)	.457*** (.349)	.308*** (.178)
뺏기	.599*** (.542)	1.235*** (.340)	.443*** (.500)	.909*** (.690)	.334*** (.313)	.693*** (.582)
	비공식적 낙인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문제아라는 낙인	1.00 (.913)	1.00 (.929)	1.00 (.899)	1.00 (.953)	1.00 (.910)	1.00 (.963)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1.057*** (.972)	.908*** (.929)	1.043*** (.956)	.952*** (.944)	1.023*** (.950)	.943*** (.939)

\* p < .05 \*\* p < .01 \*\*\* p < .001 괄호안은 표준화된 계수임.

다음의 <표 3>은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비행 관측변수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질적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공식적 낙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자승의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8점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5)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 회귀분석에서  $R^2$ 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측정모델에서의  $R^2$ 은 잠재변인이 관측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어 관측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이용된다. 구조모델에서는  $R^2$ 는 종속변인이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노성호, 2006).

<표 3>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측정모델 관측변인의 다중상관지수

구분	비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때리기	.489	.464	.472	.622	.397	.431
패싸움	.216	.449	.454	.481	.123	.217
조롱하기	.215	.249	.285	.249	.285	.170
협박하기	.218	.400	.454	.290	.454	.319
흠치기	.149	.128	.033	.042	.121	.032
뺨기	.295	.352	.246	.474	.098	.336
	비공식적 낙인					
구분	문제아라는 낙인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차년도	.834	.864	.945	.945	.863	.863
2차년도	.808	.908	.913	.913	.891	.891
3차년도	.827	.927	.903	.903	.881	.881

다음의 <표 4>는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구조모델의 적합도<sup>6)</sup>와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 모델의 적합도는  $\chi^2$ (자유도)는 5746.383(486)이며 p값은 .000이며 RMSEA 값은 .056, CFI 값은 .915, NFI 값은 .908로 나타났다. RMSEA 값이 .08이하로 수용할만하며 CFI 값과 NFI 값이 .9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sup>7)</sup>

- 6)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와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Measures),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로 구분된다.  $\chi^2$  통계량은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로 값이 작고 확률값이 크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표본크기가 크게 되면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RMSEA(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이다. 이 값이 .05~.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10이하면 자료를 잘 적합하고 .05이하면 매우 잘 적합 시키고 .01이하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 한다(노성호, 2007). 증분적합지수는 CFI(비교적합지수)가 있다. 이 값은 0~1값을 가지며 .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NFI(표준적합지수)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0~1까지의 범위를 갖고 일반적으로 .9 이상이면 수용할만하다고 본다(배병렬, 2006).
- 7) 이 모형에서  $\chi^2$ 의 검증결과 p값이 .000으로 분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지수의 값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표 4>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

구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성별 차이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비행 → 2차 비행	.294***	.418	.584***	.701	6.657***
1차 비공식적 낙인 → 2차 비행	.031***	.123	.005	.026	-2.747***
1차 비공식적 낙인 → 2차 비공식적 낙인	.370***	.394	.418***	.432	1.291
1차 비행 → 2차 비공식적 낙인	.287***	.111	.737***	.181	3.169***
2차 비행 → 3차 비행	.569***	.664	.386***	.534	-1.293
2차 비행 → 3차 비공식적 낙인	.282*	.070	.398**	.076	.643
2차 비공식적 낙인 → 3차 비공식적 낙인	.512***	.470	.491***	.456	-.518
2차 비공식적 낙인 → 3차 비행	.008	.034	.016***	.105	2.901**
$\chi^2$ (자유도)	5746.383***(486)				
RMSEA	.056				
CFI	.915				
NFI	.908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그 첫 번째로 비행이 독립변인으로 비공식적 낙인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남녀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1차년도와 비행과 2차년도 비공식적 낙인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 계수(3.169)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8) x 표준화된 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1차년도 비행과 2차년도의 비공식적 낙인간의 관계에서 남자청소년은 .111,

8) 성별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 par 변수사이의 값을 통해 절대값 1.96보다 크면 성별로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본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여자청소년은 .181로 여자청소년의 경로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비행경력의 시작으로 인하여 주위의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여자아이의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금지된 행위일 뿐 아니라 여자아이로서 지켜야 할 태도와 행위를 어긴 것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중적 비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두 번째로 비행에 대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를 살펴보자.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1차년도의 비공식적 낙인이 2차년도의 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2차년도의 비공식적 낙인이 3차년도의 비행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화 계수: .105). 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2차년도 비공식적 낙인이 1차년도의 비행경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행을 시작한 후 경험한 비공식적 낙인이 차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간의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기 비행에서 주위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래, 낙인이론적 관점에서는 비행의 결과인 낙인에 주목하여 이후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향후 낙인이론적 논의를 확장시켜 초기 비행을 설명할 때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경험이 지속될 가능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먼저, 1차년도의 비행과 2차년도의 비행간 관계에서 여자청소년의 표준화계수가 .701로 남자청소년의 .418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한번 비행을 저지르게 되면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차년도의 비행과 3차년도의 비행간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남녀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로계수가 .664로 여자청소년(.534)보다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후 반복적인 비행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반복되는 비행과정을 경험하면서 성별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표 4>에서 나타난 관계를 중심으로 발생시간 순서대로 표준화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많이 저지를수록 이후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비행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경험이 많을수록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저지를수록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도록 하지는 않았다. 즉, 남녀 모두 비행을 저지를수록 주위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비행을 저지른 남자청소년은 주위사람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문제아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비행을 중단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여성은 어릴 적부터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여자비행청소년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사회전체에서부터 이탈되거나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 긴장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여 결국 비행 및 범죄행위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춘화·윤옥경, 2003). 이러한 결과는 여자비행청소년은 남자비행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기회가 차단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생존의 수단으로 비행경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Schur, 1984; Robin, 1986; Peggy & Stephen & Allen, 2004 재인용; Chesney-Lind & Pasko, 2004a; Chesney-Lind & Shelden, 2004b)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다음의 <표 5>는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2차년도 비공식적 낙인은 1차년도 비공식적 낙인과 1차년도 비행으로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18.9%,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27.3%가 설명되고 있으며 2차년도 비행은 전년도 비행과 전년도 비공식적 낙인으로 남자청소년은 21.5%, 여자청소년은 50.4%가 설명된다. 또한 3차년도 비공식적 낙인은 2차년도 비공식적 낙인과 2

차년도 비행으로 남자청소년은 23.5%, 여자청소년은 23.0%이며 3차년도 비행은 전년도 비행과 전년도 비공식적 낙인으로 남자청소년은 44.9%, 여자청소년은 32.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공식적 낙인과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5>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 구조모델 잠재변인의 다중상관지수

구분	잠재변인							
	2차년도 비공식적 낙인		2차년도 비행		3차년도 비공식적 낙인		3차년도 비행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R^2$	.189	.273	.215	.504	.235	.230	.449	.323

### 5. 결론

이 연구는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의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여 반복적 비행과정을 구체화시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공식적 낙인에 대한 비행의 효과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비공식적 낙인에 대한 비행의 영향력에서 여자청소년이 더 크게 나타나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은 동일한 비행경력을 지닌 남자청소년에 비해 주위의 비공식적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심하게 때리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여자청소년은 동일한 비행을 저지른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자청소년만이 비



공식적 낙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어릴 적부터 항상 주위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도록 사회화되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시기 이전의 비행경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비행에 대한 비공식적 낙인 또한 형성 시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변수들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연구 자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수의 선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비행으로 인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와 비행의 반복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비행의 지속경로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여성다운' 여성상과 '남성다운' 남성상을 요구하며 전형적인 성역할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통제하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청소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중적 비난이 가해진다. 또한 주위로부터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사회화된 여자청소년은 비행을 처음 저지른 후 경험하는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비행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와 성역할 사회화 때문으로 비행에 대한 의미가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반복되는 비행에 대한 원인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비행경력의 지속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비행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 즉, 비행이라는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비행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확대 주목하여 무조건적인 비난을 해서도 안 되며 남

자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남성이라는 이유로 합리화시켜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반복적인 비행과정에서 비공식적 낙인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여자비행청소년의 경우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 김기현·임희진. 2007. “패널데이터의 기초활용방법-한국청소년패널 사례분석.”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 김은경·이동원. 2003.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응렬. 2001.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순홍 외. 2007a. 『한국 청소년의 삶 : 학교생활·가정생활·여가생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외. 2007b.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순홍 외. 2007c.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김준호·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발표집』 pp. 361-385.

- 노성호. 2007. “비행의 발전에 대한 대립적인 범죄이론의 비교검증.”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집』 pp. 363-386.
-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도서출판 청람.
-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 에이커스(Akers, R. L.). 2000. 『범죄학이론』, 민수홍·박기석·박강우·기광도·전영실 역. 지산.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5: 335-367.
- 이성식. 200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 종단적 패널연구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7: 15-33.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Moffitt의 이질적 비행 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6: 269-300.
- 이순래. 2007. “일탈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심포지엄 발표집』 pp. 83-113.
- 이순래·박철현. 1999.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국공안행정학회』 9.
- 이춘화·윤옥경. 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Adams, S. Mike & T. Evans. 1996. “Teacher disapproval, delinquent peers,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The Urban Review*. 28: 199-211.
- Bernburg, J. G., & M. D. Krohn. 2003. “Labeling, Life Chances, and Adult crim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official intervention in adolescence on crime in early adulthood.” *Criminology*. 41: 1287-1318.
- Chesney-Lind, M. 2004a. *Girls Women, and Crime : Selected Readings*. SAGE

- Chesney-Lind, M., & Randall G. Shelden. 2004b.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third edition*. Wadsworth.
- Chilton, R., & Jim Galvin. 1985. "Race, crime and criminal justice." *Crime and Delinquency*. 31: 3-41.
- Foglia W. 1997. Perceptual deterr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Norms among inner-city teenag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 414-442.
- Heimer, K., & C. Kruttschnitt. 2006. *Gender and Crime: Patterns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New York University Press.
- Kaplan, H. B., & R. J. Johnson. 1991. Negative social sanctions and juvenile delinquency: effects of labeling in a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72: 98-122.
- Leiber, M. J., & K. Y. Mack. 2003. "The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f race, gender, and family status on juvenile justice decision-mak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34-70.
- Lemert, E.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oeber, R., D. Merton, & G. Schwartz. 1985. "Appropriate age-related behavior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dult perceptions." *Youth and Society*. 17: 115-130.
-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1577-1611.
- Paramara, F., F. T. Cullen, & J. C. Gersten. 1986. The Effects of Police and Mental Health Intervention on Juvenile Justi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90-106.
- Peggy C. Giordano, Stephen A. Cernkovich, & Allen R. Lowery. 2004. "A Long-Term Follow-up of Serious Adolescent Female

- Offenders.” in Martha Putallaz Karen L. Bierman.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Violence among Girl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ampson, Robert J., & J. 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obert J., & J. H. Laub. 2004.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 133-161.
- Schur, E. 1984. *Labeling Women Deviant*. New York Random House.
- Shover, N., S. Norland, J. James, & W. Thronton. 1979. “Gender Role and Delinquency.” *Social Forces*. 58:162-175.
- Visher, C. 1983. “Gender, police arrest decision, and notions of chivalry.” *Criminology*. 21: 5-28.
- Zatz, M. 1984. “Race, Ethnicity and Determinate Sentencing.” *Criminology*. 22: 147-171.

최수형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2008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비행경력과정에서 나타난 부모의 폭력적 훈육효과 :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2008) 등이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에서 입선했다.

[2008. 3. 31. 접수; 2008. 9. 28. 채택]

